

2030엔 카뱅이 ‘리딩뱅크’… 기존은행, 대반격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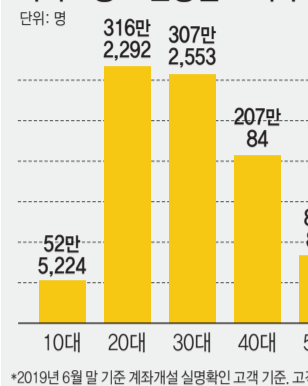
금융, 플랫폼이 된다

〈中〉은행권, 미래고객 전쟁

카뱅, 20대 고객 316만명 달해 30대도 307만명… 비중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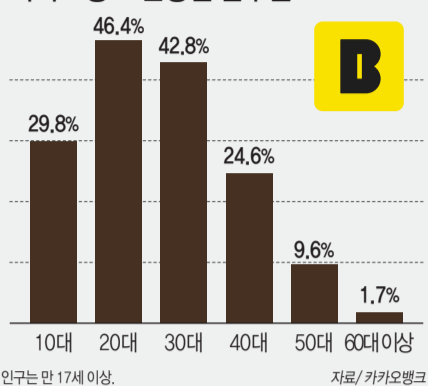
은행권, BTS 등 모델 내세우고 젊은층 대상 상품 줄줄이 선보

카카오뱅크 연령별 고객 수



*2019년 6월 말 기준 계좌개설 실명확인 고객 기준. 고객 연령대는 만 나이 기준, 인구는 만 17세 이상.

카카오뱅크 연령별 침투율



자료/카카오뱅크

번거로움의 최소화. 최근 은행권의 화두는 ‘90년생이 온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대변된 젊은 층의 생각과 행태였다. 비대면 활성화로 젊은 층의 금융거래가 점차 늘고 있는데다 2030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요 주체로 자리잡으면서다.

모바일로만 승부를 내겠다던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고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1000만 고객 돌파라는 사실 자체보다 시중은행들은 카카오뱅크의 주요 고객이 2030이라는 점에서 긴장한다. 2030은 훨씬 고도화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 대형은행들

의 모바일 앱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를 선택했다. 이들은 복잡한 유용함보다는 카카오뱅크 앱을 하나의 놀이터이자 플랫폼으로 삼고 금융거래를 재미있고 간편하게 즐겼다.

◆20대, 두 명 중 한 명은 ‘카뱅’ 고객

2030세대만 놓고 보자면 은행권에서 리딩뱅크는 시중 대형은행이 아니라 카카오뱅크다. 인터넷뱅킹 초차 번거로운 이들에게 모바일 온리(Only) 전략은 그대로 적중했다.

1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만 나이) 고객은 316만

2292명이다. 우리나라 20대 인구가 682만221명임을 감안하면 46.4%가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 20대 두 명 중 한 명은 카카오뱅크 고객인 셈이다.

30대 역시 카카오뱅크 고객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카카오뱅크의 30대 고객은 307만2553명으로 같은 연령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8%에 달한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은 “사잇돌 대출과 전월세보증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카카오뱅크는 20~30대 고객을 중심으로 시장 지

배력이 확고하다”며 “이런 시장 지배력은 가파른 대출 성장으로 귀결해 높은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직 경제활동은 미미하지만 미래 잠재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역시 카카오뱅크가 주도권을 가져갔다. 카카오뱅크의 10대 고객수는 52만5224명으로 만 17세 이상 10대 인구 가운데 29.8%를 차지했다.

◆은행권, 2030 미래고객을 잡아라

시중 은행들도 2030 미래고객잡기에 나섰다. 은행권 광고모델은 아이돌 스타들로 채워졌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도 줄줄이 선보였다.

KB국민은행은 청춘 고객을 대상으로 ‘KB청춘마루’라는 브랜드를 내세웠다. 2018년 4월에 개관한 KB청춘마루는 미래고객 지원을 강조하는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윤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스고객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으며, ‘KB X BTS 적금’은 2000억

원이 넘게 판매돼 협업효과도 톡톡히 봤다.

신한은행은 역시 지난해 아이돌 그룹 워너원을 모델로 선정한 바 있으며, 워너원 멤버들의 얼굴을 담은 체크카드는 사전 예약만으로 5만좌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는 디지털뱅크 시장을 선도하는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우 박보검을 모델로 내세웠다.

NH농협금융의 경우 김광수 회장이 직접 금융지주 및 계열사 90년대생 직원 20명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김 회장은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읽기를 권하는 등 평소 조직에 젊은 생각을 전파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김 회장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간단함과 재미, 그리고 솔직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협금융의 혁신과 체질개선을 선도하고,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소나기에 생긴 도랑 ‘폴짝’

서울지역에 소나기가 내린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이 빗물이 고인 도랑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선, 스타트업 요람 이스라엘에 투자 확대

〈현대차 수석부회장〉

리블린 대통령, 전기차 연구소 방문

“이스라엘 스타트업-현대자동차 미래과제 더 큰 기회로 전환 가능”

현대자동차그룹이 이스라엘과의 미래 자동차 산업에 협력을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산업 연구·개발(R&D)의 심장부인 현대·기아자동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넥소 수소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량을 시승하고,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 시스템 등을 경험하는 등 현대차그룹의 미래차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기술을 체험했다.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이스라엘과 현대차그룹의 미래 산업 분야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이날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4단계의 자율주행 기

술을 갖춘 차세대 수소전기차 기반의 넥소 자율주행차를 시승했다.

또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 시스템’을 통해, 차량이 생체 신호를 감지해 진동·소리·온도·향기·조명 등을 조절해주는 감정반응 차량제어 기술을 경험했다. 이어 근로자 근력 보조 지원을 위한 ‘H-CEX 의자형 착용로봇’ 등 웨어러블 로봇 및 수소전기차 넥소의 미세먼지 정화 기술 시연과 차량 충돌 시험도 참관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면담에서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현대차는 자동차·안전·혁신과 같은 주요 미래 과제를 더 큰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차가 몇몇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맺은 파트너십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스라엘 스타트업들과 공동 개발한 기술 일부는 향후 양산차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연간 26만여대 수준(2018년 기준)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2018년 이스라엘에서 3만8022대(14.2%), 3만5806대(13.4%)를 판매해 각 1, 2위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스라엘 스타트업 등 현지 기업에 대한 전략 투자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1월 이스라엘에 설립한 개방형 혁신 센터인 ‘현대 크래들 텔 아비브’를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업체인 알레그로.ai, 에너지업체인 H2프로, 드론업체 퍼셉토 등에 전략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6월에도 이스라엘의 첨단 스타트업인 엠디고에 투자를 결정하고 미래 커넥티드카용 의료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력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美中 분쟁에 日 수출규제까지 안갯속

〉〉 1면 ‘하루 하루가 살얼음…’서 계속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올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계열사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 회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추가 확대 조짐이 감지되자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구 회장은 지난 11일 경기 평택 소재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을 방문해 흥순군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장 등과 회의를 갖고 그룹 내 소재 확보부터 개발 등 관련 현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

졌다.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은 LG 그룹 내 생산 혁신 핵심조직이다. 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별 필요 소재와 장비 등 제조 생산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구 회장은 국내외 현안 점검과 동시에 미래먹거리 발굴과 인재 육성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악화된 대외환경 규제의 대응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포스코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1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

면서 미세먼지 절감에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자체의 환경 규제가 강화된 영향도 있다. 지자체는 지난 4월과 5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조업중지를 사전 통보했다. 고로 정비 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열어두고 오염물질을 배출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처분은 올해 하반기 확정될 예정인데, 업계는 조업정지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는 조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 10일 동안 고로를 멈출 경우 정상 가동까지 3개월 가량이 걸린다.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올해 실적에 치명타를 입는다.

/양성운 기자

“WTO, 안전상정 자체 물릴수도 있어”

〉〉 1면 ‘日 수출규제…’서 계속

일본측 대표가 회의를 끝난 후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측으로부터 WTO 규정 위반에 대한 항의나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밝히면서다.

정부는 즉각 일본에 유감을 표하고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지만, 일본측은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 요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합의 내용을 넘어선 발언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WTO가 안전을 본회의에서 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만큼, WTO에도 안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 상정 자체를 물릴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한일 정부가 무역분쟁을 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이라며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고려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